

어떻게 케네디는 미국인이 달에 첫 발자국을 찍게 했을까

사(史): 시대와 정신 기말보고서

사학과

2017*****

허진

I. 서론

1960년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제 3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미국은 위축즉발의 상황이였다. 미국은 경제적 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며 빈곤과 인종 차별 문제가 격화되었고 쿠바에선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진 피델 카스트로가 정권을 수립했다. 특히 동서냉전 상황은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때 1957년 10월 4일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위성 발사는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크게 망가뜨렸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은 스스로 공산주의의 대표인 소련과 비교해서 앞서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과학기술적으로, 그리고 위성 발사 기술을 무기에 적용했을 경우에 군사적으로 소련에게 앞질러졌다는 사실은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미국도 결국 ‘익스플로러’ 위성 발사에 성공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모든 면에서 소련에 뒤떨어져 있었다.¹⁾ 그 동안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그제야 우주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지만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미국의 우주개발은 박차를 가하게 된다. 당선 전부터 케네디는 우주개발경쟁에 큰 관심이 없었던 아이젠하워를 강하게 비판하며 우주개발에 대한 포부를 밝혔었다. 당선된 후에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인류최초의 우주비행에 성공하자, 케네디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던 미국의 국민들에게 1960년대 말까지 인간의 달 착륙을 실현시키겠다는 과감한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은 1962년에 케네디가 라이스대학교에서 한 우주개발에 대한 연설을 줄인 것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험이라 할 우주 탐험은 우리가 참여를 하든, 안하든 계속 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을 이끄는 지도국가가 되려는 나라가 우주를 향한 경쟁에서 뒤로 물러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우리는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 우주가 거기 있고, 달과 행성들이 거기 있으며, 지식과 평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거기에 있으므로 우리는 달에 갈 것입니다.”²⁾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계획이 너무 무모하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정말로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의 선장인 닐 암스트롱과 선원 올드린이 달에 최초로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이 되었다. 이 둘과 사령선에 남아있었던 콜린스까지 합친 세 명은 전부 미국인이었다. 소련에게 뒤쳐져있던 우주경쟁의 주도권을 미국이 되찾아온 것이다. 달에 갔다온 후 닐 암스트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걸음에 지나지 않지만, 인류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도약이다.”

미국은 1950년대에만 해도 소련에게 우주개발에서 밀려있었다. 그런데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후 미국이 소련보다 먼저 위대한 도약을 이루게 된 것이다. 과연 어떻게 케네디는 미국인이 달에 첫 발자국을 찍게 한 것일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케네디가 실제로 미국의 우주개발경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에 미국의 우주개발상황을 비교해볼 것이다. 그다음 막스베버가 쓴 ‘소명으로서의 정치(Politik als Beruf)’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의 질문의 답을 찾아볼 것이다.

1) 권노갑, 「존F.케네디의 연설문에 나타난 정치사상 연구」, 한국어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13, P.56.

2) 윗글, P.58.

II. 미국의 케네디 당선 이전과 이후 우주개발

1. 케네디 당선 이전의 우주개발

1950년대는 핵폭탄 개발로 인해서 공산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간의 냉전이 최고조에 이르러 있었다. 특히 소련과 미국은 서로 언제 핵폭탄이 본토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었다. 두 나라는 상대나라보다 앞선 군사력을 갖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연구된 것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였다. 대륙간탄도미사일에서 필요한 것은 무거운 미사일을 멀리, 높이 날려 보내는 기술이다. 기술을 연구하던 미국과 소련의 과학자들은 이 기술을 우주탐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양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우주개발경쟁이 시작되었다. 미국의 우주개발을 시작한 사람은 폰 브라운이라는 과학자였다. 폰은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에게 충성하며 장거리 미사일인 V2를 만들었던 개발팀을 이끌었었다. 그런데 독일이 패전하면서 폰은 미국에 투항했고 미국은 뛰어난 과학자인 폰을 미국의 우주개발기술을 담당하게 했다. 폰은 소련보다 앞서서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릴 준비를 맞췄지만, 미국은 그가 예전 나치에 충성했었다는 이유로 그가 업적을 이루는 것을 탐탁치 않아했다. 결국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먼저 쏘아올리고 나서야 미국은 폰을 인정했다. 하지만 시작시점의 차이는 계속 좁혀지지 않았고, 미국 정부는 폰에게 지원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빠른 결과만을 요구했다. 그리고 공산주의였던 소련은 국가적 지원이 우주개발에 매우 큰 도움을 주었지만, 자본주의였던 미국은 우주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다. 결국 소련에서 먼저 인간의 우주비행을 성공 시키게 된다.

2. 케네디 당선 이후의 우주개발

대통령으로 당선된 케네디는 현재 미국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프런티어’ 정신으로 과거의 선구자들처럼 꿈을 향해 도전해야 한다는 정치적 비전을 내세웠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그는 냉전 중에 아직 체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다른 나라들에게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³⁾ 그를 위해서는 소련과의 우주개발경쟁에서 승리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1958년 NASA를 설립하고 이곳에 해군, 육군, 공군 그리고 다른 여러 기관의 우주관련 사업들을 모아서 미국의 우주개발의 중심을 만들었다. 그다음 머큐리 3호를 발사해서 미국도 인간의 우주비행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케네디는 소련이 우세하지 않던 분야인 달 탐사와 착륙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1960년대 말까지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고 또 무사히 귀환시키겠다는 계획은 무모할 정도로 대담할 정도였다. 성공한다면 그것은 실추된 국가의 위상을 단숨에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비용과 시간, 자원 그리고 많은 희생과 굳건한 신뢰가 필요했다. 케네디는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했다. 그 방법으로 케네디는 국민들에게 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달 탐사와 착륙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케네디는 1961년 케네디우주센터의 건설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수많은 실험을 거쳐서 드디어 1969년 7월, 정말로 1960년대가 지나기 전에 아폴로 11호의 선원들 중에서 닐 암스트롱 선장과 에드윈 올드린 주니어가 우주복을 입고 달 표면에 인류 최초로 발을 딛게 된다. 덕분에 미국은 우주기술에 대한 자존심을 회복했다. 이후에도 미국은 6대의 유인 우주선이 달 탐사에 성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3)권노갑, 「존F.케네디의 연설문에 나타난 정치사상 연구」, P.57.

Ⅲ. 케네디가 달 착륙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 -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의 내용을 중심으로

1. ‘올바른 정치가’였던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는 침체된 분위기였던 미국의 국민들에게 미국인으로서의 위신회복과 활기찬 분위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⁴⁾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도전과 창조를 모토로 삼은 정치적 계획으로서 ‘뉴프런티어’를 주창했다. ‘뉴프런티어’는 과거 미국의 선구자들이 서부를 개척했던 것처럼 지금의 시련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발전에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획이었다. 그리고 1961년 소련에서 인간의 우주비행이 성공하자 케네디는 의회에 보내는 특별교서를 통해 1960년대 말까지 인간의 달 착륙을 성공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계획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비용과 시간, 자원 그리고 많은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케네디가 이러한 무모한 계획을 실행하려 한 이유는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 실현과 개척 의무였다. 케네디는 우선,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전 세계를 넘어서 우주공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우주는 정복이라는 적대적인 깃발을 꽂는 곳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의 가치 아래 운영되는 곳이어야 한다고도 말한다.⁵⁾ 그리고 미국인들이 우주에서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은 곧 지구에서 자유의 대의를 발전시키는 것임을 강조한다.⁶⁾ 거기다가 케네디는 미국이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의무적으로 미지의 우주를 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미국의 국민들에게 ‘뉴프런티어’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우주라는 공간이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용기 있게 도전할만한 영역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선조들처럼 개척자가 될 것을 호소했다.⁷⁾ 케네디는 미국의 대의가 옳다는 철저한 믿음, 그에 따른 희망과 기대를 실현하려는 열정으로 넘쳤다.⁸⁾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자신의 저서인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가에게 필요한 자질 3가지를 열정, 책임감, 그리고 균형적 판단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열정은 대의와 대의에 대한 헌신을 가리킨다. 막스베버는 ‘올바른 정치가’는 권력을 개인적인 자기도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대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하고, 대의에 대한 헌신과 책임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⁹⁾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케네디는 우주경쟁 분야에 있어서 올바른 정치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인간의 달 착륙을 성공시키려 한 이유들 중에는 확실히 냉전 중 미국이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대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국민들 앞에서 그의 열정을 연설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가로서의 균형적 판단을 통해서 책임감도 잃지 않았다. 달 착륙 프로젝트에 필요한 희생

4)한영탁, 「세계의 지도자 : 꿈과 용기를 심어준 지도자 존 F.케네디」, 『한국논단』, 271호, 한국논단, 2012, P.62.

5)조숙경, 「존F.케네디 우주를 향한 새로운 도전」, 『과학과 기술』, 38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05, P.57.

6)권노갑, 「존F.케네디의 연설문에 나타난 정치사상 연구」, P.60.

7)윗글, P.62.

8)김정배, 「케네디 행정부의 중국정책, 그리고 냉전체제」, 『미국사연구』, 33호, 한국미국사학회, 2011, P.194.

9)Max Weber, 『소명으로서의 정치』, 최장집 역, 후마니타스, 2011, pp.196~201.

을 국민들에게 권력으로 강제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협조해주기를 요청했다. 그건 1962년 라이스 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했던 연설에 잘 나와 있다.

“우리가 우주를 개척하는 것은 인류가 착수하는 모든 일에 자유인이 전적으로 참여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 모든 과학자, 공학자, 군인, 기술자, 건축업자 및 모든 공무원이 이 나라가 자유와 더불어 전속력으로 흥미진진한 우주 모험을 향해 달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으면... 그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 왜냐하면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고, ...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도전이고 뒤로 미루기 싫은 도전이며, 우리가 ... 성공하고자 하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¹⁰⁾

케네디는 국민들에게 대의를 위한 희생을 단순히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했다. 케네디와, 1963년 케네디가 암살당한 후에 들어온 존슨정부는 꾸준히 국민들을 설득했고 1965년에는 58퍼센트의 국민들이 달 착륙 프로젝트를 지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케네디는 우주개발로 인해서 많은 자원이 사용되긴 하지만 최대한 우주개발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는 우주개발을 통해 수많은 신규회사와 수만 가지의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고, 우주산업과 그 관련 산업들은 새로운 투자자와 기술자들을 필요로 해서 도시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변방이었던 텍사스를 과학과 우주로 대표되는 새로운 개척시대의 중심으로 변모시키고자했다.¹¹⁾그는 위와 같이 대의를 위해, 대의를 향한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고자 한 것이다. 케네디는 올바른 정치가가 가져야하는 열정과 책임, 그리고 균형적 판단을 갖추고 있었던 지도자였다. 그때의 케네디는 지금까지도 미국 국민들에게 기억되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명으로 뽑히고 있을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았었다. 케네디가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막스 베버가 말한 ‘올바른 정치가’였기 때문일 것이다. 달 착륙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참이 꼭 필요했다. 만일 당시에 대통령이 케네디처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미국에서 아폴로 11호가 발사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2. 적절한 대처였던 달 착륙 프로젝트

또한 케네디의 달 착륙 프로젝트 발표는 그 당시 미국의 사회적 상황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희망과 같았을 것이다. 냉전이 심화되어갔던 당시에 소련이 미국과 우주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들은 미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망가뜨렸다. 그런 사회적 상황과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케네디는 한 번에 현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무모하지만 이상적인 목표를 내세운 것이다. 막스베버는 “국민들은 손해를 보는 것은 용서하지만 국가의 명예가 상처받는 것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라고 했었다.¹²⁾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점차 미국 국민들은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케네디의 계획에 동참했다. 이는 케네디의 사회적 상황과 국민들을 잘 이해한 정치적 방향성 덕분에 인간의 달 착륙 프로젝트가 미국의 국민들에게 잘 수용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관료들에게도 달 착륙계획이 성공만 한다면 매우 반가운 일이었다.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1970년대 초반까지

10)권노갑, 「존F.케네디의 연설문에 나타난 정치사상 연구」, pp.60~61.

11)조숙경, 「존F.케네디 우주를 향한 새로운 도전」, p.57.

12)Max Weber, 『소명으로서의 정치』, p.204.

미국의 관료들은 매우 투철한 냉전적 사고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들은 미국의 자본주의를 옹호하면서 소련의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아야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¹³⁾ 그들에게 소련과의 우주경쟁에서 미국이 패배한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게 패배하는 것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당시에 냉전 이데올로기를 반대하고 대중 정치가로 살아남기는 거의 불가능 했다. 따라서 케네디는 미국이 우주경쟁에서 소련을 역전할 방법을 찾아내야했고, 그 방법이 바로 달 착륙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만 얻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다른 정치인들과의 합의도 필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관료들이 처음에는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달 착륙 프로젝트를 반대했었다. 하지만 케네디는 관료들에게 현 정치적 위기 상황을 타계할 방법이 바로 달 착륙 프로젝트라는 것을 열심히 설득했다. 케네디는 NASA의 제임스 E. 웹마와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수행할 모든 것은 소련인보다 먼저 달에 첫발을 내딛는 사업에 제대로 연결되어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정당화되는 것은 단지, 신에게 맹세코 반드시 몇 년 내에 그들을 추월하여 미국이 뒤쳐져있다고 생각하는 세계에 성과를 과시하여 소련을 때려눕힐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달 착륙 프로젝트는 케네디의 국민들과 관료들에게 점차 지지를 얻게 되었다. 케네디의 계획이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우주경쟁에 대한 대응이 국민들의 심리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모두 고려한 결과였기 때문일 것이다.

3. 혼자가 아니었던 지도자

게다가 케네디는 자신과 정치적 생각이 매우 비슷했던 측근들, 다르게 말하면 추종자들이 있었다. 케네디의 측근은 정치가, 외교관, 장군을 중심으로 젊고 참신한 인물들로 채워졌다. 그들은 대개 학계와 실업계에서 열정을 가지고 여러 이론을 현실에 적용시키려는 야심찬 사람들, 즉 행동파 지식인들이었다. 그래서 케네디 행정부는 아서의 신화적 궁정인 카멜롯으로 불릴 정도였다.¹⁴⁾ 그리고 국무장관에게 일을 맡기던 예전 아이젠하워 행정부와는 다르게 케네디는 보좌관들과 논의를 거쳐 직접 일을 처리했다. 막스베버는 “지도자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자신의 인적 기구가 원활하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¹⁵⁾ 이는 전 행정부와는 달리 케네디가 성공적으로 우주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측근들과의 협력이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케네디의 측근들은 각자가 바라는 보상 때문에 그를 따르는 것이지만 그의 인간성과 대의에 대한 열정은 추종자들의 동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미국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케네디행정부의 성향이 10년 내에 달에 인간의 발자국을 남기겠다는 계획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케네디행 정부는 케네디가 암살당한 후에, 케네디가 대선후보였을 때 러닝메이트였고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는 부통령으로서 그를 도왔던 린든 B. 존슨이 대통령이 되어서, 거의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존슨 대통령과 옛 케네디의 행정부멤버들은 케네디의 뜻을 이어 계속해서 미국인들에게 달 착륙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결국 그들이 미국의 우주경쟁승리를 이루었던 것이다.

13)장준갑, 「John F. Kennedy의 냉전」, 『미국사연구』, 35호, 한국미국사학회, 2012, p.93.

14)김정배, 「케네디 행정부의 중국정책, 그리고 냉전체제」, pp.194~195.

15)Max Weber, 『소명으로서의 정치』, p.222.

IV. 어째서 소련은 달에 발자국을 찍지 못한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글의 주제를 방해하지 않도록 간단하게만 설명할 것이다. 우선 소련 과학자들의 무리한 엔진기술의 사용으로 인해 계속해서 로켓발사를 실패했기 때문이다. 소련이 달 착륙 계획을 위해서 준비한 로켓은 'N1'이라고 불리는 30개의 엔진을 달고 있는 로켓이었는데, 엔진이 하나만 고장 나도 모든 엔진이 고장나버리는 구조였다.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엔진의 수만 늘렸던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로켓을 계속해서 수정해나간다면 언젠가는 발사에 성공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련의 과학기술은 미국에 전혀 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련의 우주개발에 제동을 건 주된 요인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였던 소련의 특성상 국가의 돈만으로 자금을 충당해야했고 그것은 미국에서 국민의 지지를 통해 얻은 세금으로 충당한 자금보다는 부족했다. 미국이 달 착륙계획을 위해서 매년 50억 달러를 크게 넘어섰던 예산이 사용됐던 것에 반해서 소련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매년 40억 달러에 못 미쳤다고 한다.¹⁶⁾ 예산을 비교해보면 케네디가 필사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1960년대 초반 해도 미국은 소련과의 우주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후에 상황이 점차 바뀌더니 결국 미국이 소련보다 먼저 인간의 달 착륙에 성공시키면서 냉전동안에 진행된 우주경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차지했다. 그것이 가능했던 원인을 막스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해 봤다. 그 원인은 세 가지로도 한 가지로도 정리가 가능하다.

우선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그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품게 만들기 충분한 정치가였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을 위한 대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 대의를 위해서 달 착륙 계획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야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제대로 국민들에게 동참을 촉구하면서 최대한 발생할 희생을 줄이고자 했다. 그의 '올바른 정치가'의 모습이 달 착륙 계획에 꼭 필요했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게 했던 것이다. 두 번째, 달 착륙 계획의 발표가 시기적절했기 때문이다. 당시 냉전 중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본격적인 우주경쟁의 시대였는데, 소련이 미국보다 앞서있었다. 당시 사회적으로 위촉즉발의 상황이었던 미국이 우주경쟁에서도 밀리자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관료들은 대책을 강구했다. 그때 케네디가 발표한 계획은 너무나도 무모했지만 너무나도 이상적이었던 것이다. 이는 미국 사회의 이루고 싶은 꿈이 되기에 충분했다. 마지막으로 케네디행정부의 미국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성향 덕분이다. 케네디의 미국주의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은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추종자들과 함께하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강대국인 미국의 행동과 지식인들이었던 케네디 행정부가 아니었다면 인간의 달 착륙은 상상하기만 할 뿐 아무도 실제로 이루려

16) James Oberg, 《Final Frontier》, 《The New Book of Popular Science Annual》, 1992, Wikipedia에서 재인용

고 하지 않았거나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케네디가 암살당한 후에도 계속해서 달 착륙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도 바로 옛 케네디 행정부였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모든 원인을 한 가지로 정리해보면, 바로 케네디가 뛰어난 정치가이자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열정과 책임의 균형적 판단능력, 사회적 상황과 여론의 파악능력, 그리고 인적 기구 관리능력을 갖추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정치가이자 지도자였던 케네디가 대통령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케네디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인간이 달에 간다는 꿈을 꾸게 만들었고,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의 의지는 꿈을 이루게 만들었다. 뛰어난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참고문헌

1. 기초 자료

Max Wever, 『소명으로서의 정치』, 최장집 역, 후마니타스, 2011.

권노갑, 「존F.케네디의 연설문에 나타난 정치사상 연구」, 한국어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13.

2. 국내 논저

김정배, 「케네디 행정부의 중국정책, 그리고 냉전체제」, 『미국사연구』, 33호, 한국미국사학회, 2011.

장준갑, 「케네디의 외교적 리더십 : 현실적 평화주의자」, 『동국사학』, 47권, 동국사학회, 2009.

장준갑, 「케네디와 흐루시초프 - 위기극복의 지도력」, 『서양사학연구』, 22호, 한국서양문학사학회, 2010.

장준갑, 「John F. Kennedy의 냉전」, 『미국사연구』, 35호, 한국미국사학회, 2012.

조속경, 「존F.케네디 우주를 향한 새로운 도전」, 『과학과 기술』, 38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05.

한영탁, 「세계의 지도자 : 꿈과 용기를 심어준 지도자 존 F.케네디」, 『한국논단』, 271호, 한국논단, 2012.